

### ※ 중세 러시아 문학이란, ... ?

I. 정의 및 대상
II. 특징
III. 시대 구분
IV. 장르 구분
V. 연구방법론

#### I. 정의 및 대상

; 중세 동슬라브 문학, 중세 러시아 문학, 중세 러시아 문화, ‘세속’ 문학

- 흔히, “고대 러시아 문학(Древне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또는 “러시아 고대 문학”이라고 말해진다. 하지만, ‘러시아 중세 문학’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고대’древнее라는 시대 규정에 러시아 역사를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없다고 전혀 말하기 어려우며, 문자의 도입과 함께 러시아 문학이 시작된 서기 1000년은 중세 일반에서도 이미 중세 후반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유럽 일반의 시대 구분과 인식과 동떨어진 용어로 가뜩이나 ‘독특한’ 러시아를 전공자들이 나서서 더욱 특이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대’로 규정지며, 고대 이후의 시기인 ‘근대’와 불필요한 대립 및 분절의 의미론을 은연중에 생성함으로 인해 양자를 더욱 내적으로 무관한 대상으로 분리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러시아 고대 문학은 엇비슷한 시기의 중세 유럽 문학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성격은 「종교문학」이며 「역사문학」이었다.

- 고대 러시아 문학보다는 ‘중세 러시아 문학/러시아 중세 문학’, -보다 정교하게는 “중세 **동슬라브** 문학”이 훨씬 더 합목적적이면서 정확한 표기라 여겨지지만-, 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cf) 교재 72쪽 각주 2

- 다만, 좁은 의미에서의 문학을 벗어난 같은 시기의 러시아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는 ‘중세 러시아문화’로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칭하도록 하겠다.

- 오늘날 개념의 문학과는 사실 거리가 먼 ‘글쓰기(книжность)’ 중에서, 문학사에서 직접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연구되는 작품과 종류는 제한적이다. 대체로, 세속적이며 역사적인 글쓰기 작품들이 근대적 ‘연구’의 개념에서 문학사에서 다루어진다.

#### II. 특징

1. 형태적 특징 = 수사성(手寫性), 편집성, 익명성, 전범성

i) 인쇄가 발명(1566),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 사람의 손으로 필사, 수사본(рукопись)으로 전파가 이루어졌다. ...

ii) 그리고, 오늘날처럼 개별 작품 또는 글쓰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엇비슷한(또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글과 함께 하나의 선집(сборник) 속에 섞여 들어가 존재, 전래, 재편집되어 왔다.

iii) 또한, 작가 자신이라는 개인을 내세울 필요도, 그래서 안되는 익명성이 요구되는 자질 중의 하나였다.

iv) 마지막으로, 수립된 전통의 전범(典範)을 충실히 따르고 이행하는 것이 권장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다.

## 2. 주제적 특징 = 종교성, 역사성

; 중세 러시아(동슬라브) 문학은 기본적으로 중세 서유럽 문학과 궤를 같이 해, 기독교 중심의 종교문학이면서 동시에 (지배층의 기록이자 정당화인) 역사문학이었다.

## 3. 내용상 특징 = 애국성, 시의성

; 동시에 세속적 주제로서 역사 기록의 연대기(летопись)를 제외하고, 근대적 개념의 '창작' 문학으로서, 문학사에서의 직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거의 대체로 애국적인 파토스에서 비롯한 **민족주의 문학**이거나 또는 러시아 사회내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시사적 연관을 강하게 가지는 **시민적 문학**이다. 특히, 이 부분은 나중 18세기 이후 러시아 문학의 강한 '사회 참여성(engagement, [fr.])'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 III. 시대 구분

; '첫 300년' => '모스크바의 두 번째 300년' => '전환기(17세기)'

1. 키예프 루시(~1240) 시대의 **동슬라브 공통(!)** 문학 300년의 시대

2. (몽고-타타르 침략과 지배 이후) 모스크바 (대)공국 시대(1240~1584) 300년의 민족주의적, 중앙집권적, 종교적, 사회적 문학

3.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기 문학, 과도기 '17세기'(1584~1703; 16세기 후반~18세기 초)

## IV. 장르 구분

; 한 가지 언급할 수 있을 것은, 중세 문학은 매우 '실용적'이었으면서 전통과의 강한 종적 연관성 못지 않게 또한 사회와의 횡적 관련을 강하게 가졌다는 점이다. 또한, 근대 문학 대비 장르의 겹침과 미분화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식적 영역에서 문자화된 문학 외에 구전의 영역에서 전래된 민간서사시(былина) 등도 있었다.

- 교회 영역에서의 설교문(слово)
- 연대기
- 군담
- 여행기
- 세속적 내용의 여러 글들(слово)
- 사회 시의적 성격의 글

## V. 연구방법론

; 수사본의 필사 이력 연구, 즉 '텍스트' 연구는 물리적 실체로서 수사본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다. 여기에는 고문서학(палеография)과 고문헌학(археография)이라는 거대한 두 분과 학문이 자리잡는 지점이다. 고문서학은 문학적 가치를 논하기 이전, 수사본 자체에 대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다. 즉, 수사본의 종이 또는 양피지의 상태와 잉크의 채색 텍스트의 안료, 붓, 수사본 도서(рукописная книга)의 제책과 제본, 보관상태, 연서(連書; вязь), 각종 채색삽화 등의 장식, 미니어처 삽화, 수식표(水識表;

водяные знаки, филиграны), 서체[устав, полуустав, скоропись], 암기[暗記; тайнопись], 연대 계산, 그리고 수사본 개술[概述; описание] 등의 작업이 이 고문서학에서 다루는 분야이다.

요컨대, 수사본과 수사본 도서 자체의 출신과 작성과정, 그리고 그것이 암호하고 있는 바를 밝히는 학문이다. 고문서학 분야에 특별히 종사하는 분들은 종종 문화재 발굴과 복원, 기본 조사 등의 작업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위과정에서 고대문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고문서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수사본 도서를 처음 접하기 시작할 때 문서고(архив)에서 사서들의 도움으로 어느정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고문헌학은 고문서학에서 밝혀낸 사실들을 토대로 개별 수사본 도서와 수사본 도서 집본[輯本; собрание]의 개술을 병행하며 궁극적으로 발견, 분류된 수사본이 출판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까지를 담당한다. 고문헌학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수사본 도서의 개술(описание)인데, 여기에는 수사본 도서의 크기와 페이지 수, 종이 상태와 각종 메모나 부가적 기록 등의 물리적 외부 특징에 대한 자세한 기술부터 시작해, 수사본 도서 각 부분의 면밀한 고문서학적인 검토와 확인은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수식표를 통한 수사본 도서의 완성 연대 측정이다-, 수사본 도서의 모든 텍스트에 대한 검토 및 1차적인 파악 등을 망라해 수사본 도서를 여러 이유 등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연구자들에게 해당 수사본 도서의 모든 외적 정보를 망라해 제공하는 작업[каталог 작성, 출판]을 수행한다.

이러한 고문헌학적인 작업은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오랜 경험과 실체를 통해 점차 원숙해지는 연구분야이다. 그리고, 수사본 도서의 보관과 운반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연구자들에게 원활한 수사본 도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생산적인 수단으로서 이 카탈로그 작성 작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고문서학과 고문헌학의 도움과 바탕작업을 통해 비로소 고대문학의 연구 분야인 텍스트 연구와 연대추정을 시작할 수 있다. 텍스트 연구는 같은 작품에 대해 둘 이상의 사본(список)이 존재하는 경우 사본들 간의 필사 선후 관계와 그 특징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